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옷술 제조 방법 {Lacquer alcohol manufacturing method}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옷술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옷과 술을 결합하여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로결석의 원인이 되는 기름덩어리를 녹여 체외로 배출하게 함으로써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불면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건강에 유익하면서도 맛과 풍미가 와인과 유사하여 특히 와인을 선호하는 여성들에게 보다 적합한 옷술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3】 1994년05월20일로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 특허 10-1994-0009326호에는 옷술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공개 특허에 따르면 비자성체의 용기에 코일을 감아서 전류에 의하여 전자기장을 형성한 다음 술조제용 용수를 투입하여 그 용수속으로 오존발생기로 부터의 오존을 약 10~60분간 통과시키고 상기용수에 옷수액을 물 약 5용량부에 대하여 약 1용량부가 되게 투입한 옷 수요액에 쌀, 보리, 찹쌀 또는 현미로 되는 술밥 약 30중량부를 넣고 거기에 엿기름이나 흑설탕 중 하나를 약 10~20중량부 투입하여 약 30℃까지 가열시킨 다음 42~43℃의 품온을 유지하면서 4 ~ 9시간 1차 발효시키고, 다시 효모나 누룩 약 6~15중량부를 혼련교

반하여 3 ~ 10일간 2차 발효시킨다.

【0005】 하지만 상기 공개 특허에서는 투입되는 원료의 종류와 비율 및 발효 온도 조건등과 같은 제조 방법만 공개되어 있을 뿐 요로 결석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거나 와인과 같은 풍미를 주어 여성들에게 맞도록 한다는 기재는 어디에도 개시되어 있지 않다.

【0007】 한편, 술을 음주를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지만 오히려 체온이 하락하게 된다. 예컨대, 체온이 낮으면 암에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암이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변이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은 자기 세포의 이상 변화를 억제 또는 교정해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면역성 세포를 필요로 하는데 NK 세포(Natural Killer Cell)가 핵심적인 면역성 세포이다. NK 세포는 백혈구 속 면역세포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데, 건강한 정상인의 경우에도 하루 5,000여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NK 세포의 역할로 암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체온이 상승되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NK 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므로 암과 면역력은 체온 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신체에서 면역 작용을 담당하는 백혈구 역시 체온의 1도 상승만으로 5배가량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체온이 저하되면 당연히 면역력 역시 저하되는데 체온 1도 저하 시 면역력은 30% 정도 저하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 되며 전반적인 암 치료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9】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옷과 술을 결합하여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로결석의 원인이 되는 기름덩어리를 녹여 체외로 배출하게 함으로써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불면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건강에 유익하면서도 맛과 풍미가 와인과 유사하여 특히 와인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선호할 수 있으며 한국 전통 방식에서 옷담의 형태로 사용되어온 옷의 효능을 기반으로 하는 옷술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0】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옷술 제조 방법은 옷 성분을 포함하는 술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0011】 (a) 옷나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토복령 2 내지 5 중량부, 토종다래 10 내지 30 중량부, 상백피 3 내지 7 중량부, 유근피 0.5 내지 1.5 중량부, 닥나무 0.5 내지 1.5 중량부, 및 장수버섯 1.5 내지 2.5 중량부의 비율로 혼합하고 혼합된 재료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끓여 10 시간 내지 20 시간을 우려내어 제1 옷물을 준비하는 단계와,

【0012】(b) 제1 옷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고로쇠 수액, 자작나무 수액, 층층나무 수액, 및 다래나무 수액의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중에서 선택된 수액 5 내지 15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2 옷물을 준비하는 단계와,

【0013】(c) 상기 (b) 단계에서 준비된 제2 옷물에 효모와 설탕을 넣고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발효시키는 단계, 및

【0014】(d) 상기 (c) 단계에서 생성된 발효액을 침전시켜 옷술을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0015】본 발명에 따른 옷술 제조 방법은 옷과 술을 결합하되 옷과 함께 토복령, 토종다래, 상백피, 유근피, 및 닥나무를 특정한 비율로 혼합하고 고로쇠 수액, 자작나무 수액, 층층나무 수액, 및 다래나무 수액의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중에서 선택된 수액을 특정한 비율로 혼합함으로써 옷의 우루시올 성분을 독성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식도와 위장이 편안하면서 체온을 높이고 소변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등 신진대사를 촉진시킴으로써 음주시 먹게되는 기름기가 체내에서 굳지 않고 배출되도록 하여 체내 중성지방의 유의차 있는 저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과 식도가 편안하며 체온 상승 효과도 피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옷술 제조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옷술은 맛과 풍미가 와인과 유사하여 특히 와인을 선호하는 여성들에게 적합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6】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옷술 제조 방법의 주요 과정들을 나타낸 흐름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7】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0019】 본 발명에 따르면 술을 제조함에 있어 옷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옷은 우루시올이라는 옷독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옷을 옷담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으며 건칠(乾漆)이라고 해서 약으로도 사용해 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옷을 유일하게 먹는 국민이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옷이 있는데 도료로만 사용하고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 이유는 역시 옷나무의 독성 때문이다.

【0021】 옷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옷담을 먹고도 동일한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동의보감에는 ‘옷을 약에 넣을 때는 마땅히 짓쪼어 부스러뜨려 연기가 날 때까지 볶아 써야 한다’ 라고 했다. 우루시올은 특성상 발효과정을 거치거나 열을 가하면 일부가 불(不)활성화된다. 건칠을 볶아 사용하는 이유도 우루시올을 휘발시키기 위해서다. 6 ~ 8시간 이상 물에 넣고 달이면 상당 부분을 휘발시킬 수 있다. 또한, 칠해목(까마귀밥여름나무)과 함께 달여도 독성분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칠해목(漆解木)은 옷나무근처에서 함께 기생하는 나무로

옷이 올랐을 때 달여서 씻어주거나 복용하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름도 옷(漆)을 푸는(解) 나무(木)다. 하지만, 옷의 효능은 바로 우루시올에 있기 때문이다. 옷이 오르지 않아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시중제품들은 약이 아닌 단지 옷의 이름을 빌린 식품일 뿐이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우루시올은 역설적으로 ‘옷이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분이다.

【0023】 본 발명에 따르면 옷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루시올이 좋은 약 성분이면서 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해독성 재료로서 토복령을 추가하여 옷물을 만든다. 토복령은 해독성 재료중에서 가장 맛이 인지되지 않는다. 토복령은 옷에 함유된 우루시올 독성과 함께 성인들의 몸에 축적되어 있을 수 있는 독소를 씻어내리는 해독 작용을 한다. 예로부터 청미래덩굴의 뿌리 부분을 토복령이라 부르고 있어 토복령 효능과 청미래덩굴 효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옷에 대한 토복령의 비율에 따라 위장 신경의 거부 반응으로 인하여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정량을 결정하였다.

【0025】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옷술 제조 과정에서 옷물을 다릴때 토종 다래를 추가하여 다리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토종 다래가 특별한 맛이 없어 거부감이 없고 흡수가 잘되며 쓴맛을 커버하는 단맛을 가지는 특징을 이용한다. 다래는 키위와 동일한 품종이지만 키위를 수입산 과일로 인식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국산 키위가 이미 다래의 이름을 빌려 ‘참다래’라는 명칭을 쓴 지 오래

였다. 농가들이 이 재배 다래의 이름을 고민한 끝에 암묵적으로 합의하여 ‘토종다래’라고 칭하고 있다. '수입산 키위'는 후숙을 시켜도 신맛이 강하다. 하지만, 토종 다래는 물었을 때 꿀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식감은 물렁하고, 단맛은 키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하여 당도가 18브릭스 이상이 나온다. 따라서, 옷술을 담글때 한약재 성분이 투입되어도 단맛이 커버하여 음용시 거부감이 현저히 줄어들고 풍미를 높인다.

【0027】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옷술 제조 과정에서 옷물을 다릴때 닥나무를 추가하여 다리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닥나무는 성질은 차갑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주요 성분으로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루테올린, 탄산칼슘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닥나무는 강력한 항암작용, 자궁암·위암예방 항산화작용, 청혈작용, 고혈압 예방, 관절염·류마티스관절염·요통 효능, 무릎통증개선(탄산칼슘 함유) 침침한 눈, 흐릿한 시야 개선,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등 안과질환 효능, 눈의 피로회복, 시력강화, 야맹증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029】 이와 같이 닥나무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면서도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는 약재로 본 발명에서는 닥나무의 많은 효능중에서 청혈 작용을 이용하여 신속한 독소의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건강에 유익하고 과음하는 경우에도 신속한 회복을 꾀한다.

【0031】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옷술 제조 과정에서 옷물을 다릴때 장수버섯을 추가하여 다린다. 장수버섯은 우루시올 제거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투입한다. 옷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루시올’ (urushiol)이란 물질이 있다. 농진청은 옷나무에 장수버섯으로 널리 알려진 ‘아까시재목버섯’을 접종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버섯균이 생산하는 ‘라카제’ (laccase)라는 효소가 생물학적으로 우루시올을 변형시키는 것을 발견. 장수버섯을 투입하여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0033】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옷의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유사하게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추가하여 상승효과를 노리면서 위 신경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여 토하는 증상의 이완작용을 피하기 위해 상백피를 채택한다. 이는 상백피가 함유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상게논 G로 인하여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에 영향을 주어 이완작용을 얻을 수 있고 이로써 토하고 싶은 욕구 증상이 완화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0035】 상백피에는 모라신, 모루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모라신은 세균을 없애주는 소염작용을 하고 모루신은 악성 종양과 암세포를 없애주는 효능이 탁월해 각종 암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항암 효과의 상승 효과를 이루기 위해 항암 효능의 기전이 다른

성분을 추가한다.

【0037】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유근피를 사용한다. 유근피는 4대 항암 약초이면서도 위장병 치료와 위암에도 쓰이고 끈끈해서 위장을 보호하며 편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한다.

【0039】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닥나무를 사용한다. 닥나무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면서도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는 약재로 많은 효능중에서 이뇨작용을 이용하여 빠른 배설을 유도함으로써 토하는 증상을 예방한다.

【0041】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장수버섯을 사용한다. 장수버섯은 우루시올 제거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투입한다. 옷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루시올’(urushiol)이란 물질이 있다. 농진청은 옷나무에 장수버섯으로 널리 알려진 ‘아까시재목버섯’을 접종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버섯균이 생산하는 ‘라카제’(laccase)라는 효소가 생물학적으로 우루시올을 변형시키는 것을 발견. 장수버섯을 투입하여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0043】 또한, 본 발명에서는 닥나무 속대를 사용한다. 닥나무는 뽕나무과의 낙엽활엽 관목으로 산기슭이나 밭둑에 자라며, 햇볕을 좋아하고 추위에 강하며 꽃

은 5월에 피고 열매는 둥글고 6-7월에 붉은 빛으로 익는다. 성질은 차갑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주요 성분으로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루테올린, 탄산칼슘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잎은 둥근 타원형과 깊이 갈라진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한 나무에도 두 종류의 잎이 존재하기도 한다. 닥다му의 어린잎은 뽕나무와 같이 식용으로 사용하고 나무는 한지와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 열매는 산딸기와 비슷하며 저실이라 부르고 남자들의 양기부족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0045】 도 1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옷술 제조 방법의 주요 과정을 흐름도로써 나타내었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옷술 제조 방법은 (a) 옷나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토복령 2 내지 5 중량부, 토종다래 10 내지 30 중량부, 상백피 3 내지 7 중량부, 유근피 0.5 내지 1.5 중량부, 닥나무 0.5 내지 1.5 중량부, 및 장수버섯 1.5 내지 2.5 중량부의 비율로 혼합하고 혼합된 재료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끓여 10 시간 내지 20 시간을 우려내어 제1 옷물을 준비(단계 S10)한다.

【0046】 다음으로, (b) 상기 (a) 단계에서 준비된 제1 옷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고로쇠 수액, 자작나무 수액, 층층나무 수액, 및 다래나무 수액의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중에서 선택된 수액 5 내지 15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2 옷물을 준비한다(단계 S12).

【0047】 다음으로, (c) 상기 (b) 단계에서 준비된 제2 옷물에 효모와 설탕을 넣고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발효시킨다(단계 S14).

【0048】 이제, (d) 상기 (c) 단계에서 발효된 액에서 찌꺼기를 침전시켜 옷술을 걸러냄(단계 S16)으로써 옷술이 완성된다.

【0050】 본 발명에 따른 옷술 제조 방법에서 사용되는 옷나무, 토복령, 토종다래, 상백피, 유근피, 닥나무 속대, 및 장수버섯은 음용시 거부감이 없는지와 풍미를 느낄 수 있는지, 목넘김 즉, 식도에서의 느낌과 음주 당일 및 익일 위장상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및 소변의 원활함 및 체내 중성 지방 저하 정도에 최적이 되도록 특정한 비율을 가진다.

【0052】 이하에서는 본원 청구범위에서 특정된 혼합 구성 비율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실시예를 통해 시료주를 만들어 실험하였다. 아울러, 대조군으로서 다양한 비교예 실험도 병행하였다. 본원 명세서에서는 주요한 실시예 및 비교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0054】 [실시예 1]

【0055】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2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5 중량부, 유근피 1 중량부, 닥나무 속대 1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57】 [실시예 2]

【0058】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5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5 중량부, 유근피 1 중량부, 닥나무 속대 1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60】 [실시예 3]

【0061】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4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3 중량부, 유근피 1 중량부, 닥나무 속대 1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63】 [실시예 4]

【0064】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4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7 중량부, 유근피 1 중량부, 닥나무 속대 1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66】 [실시예 5]

【0067】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4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5 중량부, 유근피 0.5 중량부, 닥나무 속대 1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69】 [실시예 6]

【0070】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4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5 중량부, 유근피 1.5 중량부, 닥나무 속대 1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72】 [실시예 7]

【0073】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4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5 중량부, 유근피 1.5 중량부, 닥나무 속대 1.5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75】 [실시예 8]

【0076】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5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10 중량부, 유근피 1.5 중량부, 닥나무 속대 5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78】 [실시예 9]

【0079】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7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7 중량부, 유근피 1.5 중량부, 닥나무 속대 5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81】 [비교예 1]

【0082】 옷 미투입, 토복령 2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5 중량부, 유근피 1 중량부, 닥나무 속대 1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84】 [비교예 2]

【0085】 수액 미투입,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2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5 중량부, 유근피 1 중량부, 닥나무 속대 1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87】 [비교예 3]

【0088】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1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5 중량부, 유근피 1 중량부, 닥나무 속대 1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90】 [비교예 4]

【0091】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7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5 중량부, 유근피 1 중량부, 닥나무 속대 1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93】 [비교예 5]

【0094】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4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5 중량부, 유근피 미투입, 닥나무 속대 1.5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96】 [비교예 6]

【0097】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4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5 중량부, 유근피 3 중량부, 닥나무 속대 1.5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099】 [비교예 7]

【0100】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7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10 중량부, 유근피 3 중량부, 닥나무 속대 1.5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102】 [비교예 8]

【0103】 옷나무 100 중량부, 토복령 7 중량부, 토종다래 20 중량부, 상백피 10 중량부, 유근피 3 중량부, 닥나무 속대 15 중량부, 및 장수버섯 2 중량부

【0104】 본원 발명에 따른 옷술 제조 방법의 작용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의 실시예들 및 비교예들에 대하여 와인을 선호하는 여성 피험자 100 명에 대하여 6개월간에 걸친 음용 실험을 통해 음용시 거부감이 없는지와 풍미를 느낄 수 있는지, 목넘김 즉, 식도에서의 느낌과 음주 당일 및 익일 위장상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및 소변의 원활함 및 체내 중성 지방 저하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표 1에 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0106】 【표 1】

구분	음용 풍미	식도 및 위장 상태	알레르기 반응	배뇨 및 중성지방	비고
실시예 1	○	◎	◎	◎	토복령 2 중량부

실시예 2	○	○	◎	◎	토복령 5 중량부
실시예 3	◎	◎	◎	◎	상백피 3 중량부
실시예 4	◎	○	◎	◎	상백피 7 중량부
실시예 5	◎	◎	◎	◎	유근피 0.5 중량부
실시예 6	◎	◎	◎	◎	유근피 1.5 중량부
실시예 7	◎	◎	◎	◎	닥나무 속대 5 중량부
실시예 8	◎	◎	◎	◎	상백피 증량 /닥나무 속대 증량
실시예 9	◎	◎	◎	◎	토복령 증량 /닥나무 속대 증량
비교예 1	×	◎	△	×	옷 미투입
비교예 2	◎	◎	△	◎	수액 미투입
비교예 3	△	△	◎	○	토복령 과소 투입
비교예 4	×	◎	◎	◎	토복령 과다 투입
비교예 5	△	○	◎	◎	유근피 미투입
비교예 6	×	○	◎	◎	유근피 과다 투입
비교예 7	△	○	◎	◎	토복령/상백피 과투입 닥나무 속대 미투입
비교예 8	△	○	◎	◎	토복령/상백피 과투입 닥나무 속대 과투입

【0108】 표 1을 참조하면, 와인을 선호하는 여성 피험자 100 명중에서 90명 이상이 음용 풍미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를 ◎, 90명 미만 ~ 60명 이상인 경우를 ○, 60명 미만 ~ 30명 이상인 경우를 △, 30명 미만인 경우를 ×로 나타내었다. 또한, 피험자 100 명중에서 90명 이상이 음주 익일 식도 및 위장 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를 ◎, 90명 미만 ~ 60명 이상인 경우를 ○, 60명 미만 ~ 30명 이상인 경우를 △, 30명 미만인 경우를 ×로 나타내었다. 또한, 피험자 100 명중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 2명 미만으로 미약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를 ○, 2명 이상에서 미약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적어도 1명 이상에서 중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를 △로 나타내었다. 또한, 피험자 100

명중에서 배뇨가 매우 원활하고 체내 중성 지방 수치가 유의있게 하락한 피험자가 90명 이상인 경우를 ◎, 90명 미만 ~ 60명 이상인 경우를 ○, 60명 미만 ~ 30명 이상인 경우를 △로 나타내었다.

【0110】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옷나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토복령을 2 중량부만 투입한 경우에는 극히 일부의 피험자들에서 해독 작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고, 토복령을 5 중량부 투입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은 나타나지 않으나 극히 일부의 피험자들에서만 맛의 이상함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0112】 실시예 3에서와 같이 옷나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백피를 3 중량부 투입하면 맛이 이상함을 호소하는 피험자는 없으나 피험자의 일부에서 식도 및 위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현상이 미소하게 발생하였고 실시예 4에서와 같이 7 중량부에서는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식도 및 위장 상태는 편하지만 상백피 특유의 맛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피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위장 상태를 중시하는 피험자인지 맛에 민감한 피험자인지에 따라 상백피의 비율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0114】 하지만, 비교예 3에서와 같이 윗나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토복령을 2 중량부 미만인 1 중량부를 투입하면 해독작용이 미흡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피험자가 1 ~ 2 명 이내에서 발생하고 비교예 4에서와 같이 5 중량부를 초과하여 7 중량부를 투입하면 음용이 불편함을 토로하는 피험자가 다수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0116】 실시예 5 및 실시예 6에서와 같이 토복령과 상백피를 미리 설정된 범위내로 조절한 상태에서 유근피를 0.5 중량부 및 1.5 중량부 범위내로 투입하면, 모든 피험자들에서 식도 및 위장 상태가 편안하다고 응답하였다. 실시예 7에서와 같이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닥나무 속대를 5 중량부를 투입하여도 풍미가 더 좋은 경향을 보였고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0118】 하지만, 비교예 5에서와 같이 유근피를 미투입하거나 비교예 6에서와 같이 윗나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3 중량부로 과다 투입하면 오히려 식도 및 위장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는 피험자가 1 ~ 2명으로 나타났다.

【0120】 또한, 실시예 8에서와 같이 윗나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백피를 10 중량부로 증량한 상태에서 닥나무 속대를 5 중량부 투입하거나, 실시예 9에서와 같이 윗나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토복령을 7 중량부로 증량한 상태에서 닥나무 속

대를 5 중량부 투입하면, 어떠한 알러지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0122】 이는, 토복령을 증량하거나 상백피를 증량함으로써 해독 작용과 더불어 닥나무 속대로 인하여 청혈 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해독 과정에서 그 불순물을 체외로 신속하게 배출시킴과 동시에 항암 작용의 상승 효과를 얻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닥나무 속대는 단맛을 가미하게 되어 섭취가 수월하고 이로 인하여 토하는 증상을 줄여주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복령이나 상백피를 증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도 및 위장 상태의 불편함이나 음용풍미 저하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0124】 하지만, 비교예 7에서와 같이 토복령과 상백피를 과다 투입한 상태에서 닥나무 속대를 미투입하거나 비교예 8에서와 같이 토복령과 상백피를 과다 투입한 상태에서 닥나무 속대를 과다 투입하면 두 경우에서 일부 피험자들에서 음용풍미가 저하된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났고, 식도 및 위장 상태도 미소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26】 한편, 옷을 미투입한 비교예 1의 경우에는 옷의 소취 효과가 없어 많은 피험자들이 음용 풍미가 나쁘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의 피험자가 배뇨 및 체내 중성 지방 수치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액을 미투입한 비교

예 2의 경우에는 수액의 위장 보호 효과 부재로 인하여 상당수의 피험자들이 식도 및 위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0128】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옷과 술을 결합하되 옷과 함께 토복령, 토종다래, 상백피, 유근피, 및 닥나무를 특정한 비율로 혼합하고 고로쇠 수액, 자작나무 수액, 층층나무 수액, 및 다래나무 수액의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중에서 선택된 수액을 특정한 비율로 혼합함으로써 옷의 우루시올 성분을 독성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와인과 같은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체온을 높이고 소변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등 신진대사를 촉진시킴으로써 음주시 먹게되는 기름기가 체내에서 굳지 않고 배출되도록 하여 체내 중성지방의 유의차 있는 저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과 식도가 편안하며 체온 상승 효과도 피할 수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옷 성분을 포함하는 술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옷나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토복령 2 내지 5 중량부, 토종다래 10 내지 30 중량부, 상백피 3 내지 7 중량부, 유근피 0.5 내지 1.5 중량부, 닥나무 0.5 내지 1.5 중량부, 및 장수버섯 1.5 내지 2.5 중량부의 비율로 혼합하고 혼합된 재료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끓여 10 시간 내지 20 시간을 우려내어 제1 옷물을 준비하는 단계;

(b) 제1 옷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고로쇠 수액, 자작나무 수액, 층층나무 수액, 및 다래나무 수액의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중에서 선택된 수액 5 내지 15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2 옷물을 준비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 준비된 제2 옷물에 효모와 설탕을 넣고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발효시키는 단계; 및

(d) 상기 (c) 단계에서 발효된 액에서 찌꺼기를 침전시켜 옷술을 걸러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옷술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 옷나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토복령 2 내지 5 중량부, 토종다래 3 내지 7 중량부, 닥나무 0.5 내지 1.5 중량부, 장수버섯 1.5 내지 2.5 중량부의 비율로

혼합하고 혼합된 재료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끓여 10 시간 내지 20 시간을 우려
내어 옷물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옷술 제조 방법.

【요약서】

【요약】

옷술 제조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옷술 제조 방법은 (a) 옷나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토복령 2 내지 5 중량부, 토종다래 10 내지 30 중량부, 상백피 3 내지 7 중량부, 유근피 0.5 내지 1.5 중량부, 닥나무 0.5 내지 1.5 중량부, 및 장수버섯 1.5 내지 2.5 중량부의 비율로 혼합하고 혼합된 재료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끓여 10 시간 내지 20 시간을 우려내어 제1 옷물을 준비하는 단계와, (b) 제1 옷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고로쇠 수액, 자작나무 수액, 층층나무 수액, 및 다래나무 수액의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중에서 선택된 수액 5 내지 15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2 옷물을 준비하는 단계와, (c) 상기 (b) 단계에서 준비된 제2 옷물에 효모와 설탕을 넣고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발효시키는 단계, 및 (d) 상기 (c) 단계에서 발효된 액에서 찌꺼기를 침전시켜 옷술을 걸러내는 단계를 포함하여, 옷의 우루시올 성분을 독성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식도와 위장이 편안하면서 체온을 높이고 소변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등 신진대사를 촉진시킴으로써 음주시 먹게되는 기름기가 체내에서 굳지 않고 배출되도록 하여 체내 중성지방의 유의차 있는 저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과 식도가 편안하며 체온 상승 효과도 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도면】

【도 1】

